

2018 04

학교흡연예방사업 뉴스레터 Vol. 30



☞ 이달의 정책, Vol.30

흡연과 건강형평성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고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흡연과 빈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담배는 보다 빈곤한 집단에서...



☞ 이달의 연구, Vol.30

웹툰 속 흡연장면과 담배 간접광고

강력한 담배 통제 정책 및 규제로 인해 담배 업계는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담뱃세가 80%나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실내에서 흡연이...



☞ 학교 소식, Vol.30

태안 창기중, 흡연예방교육 및 체험관 운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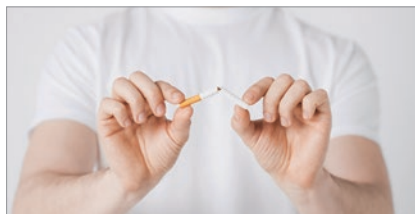
태안군 창기중학교(교장 김종범)는 지난 2일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금연선포식 및 흡연예방 체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 현장 인터뷰, Vol.30

전북 군산제일중학교 이용 선생님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제일중학교는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 참여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 되었다가 광복 후 복교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의 명문 학교입니다. 2018년 현재 동일주소지에...



☞ 학교 알리미, Vol.30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 안내 외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은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WHO가 정한 기념일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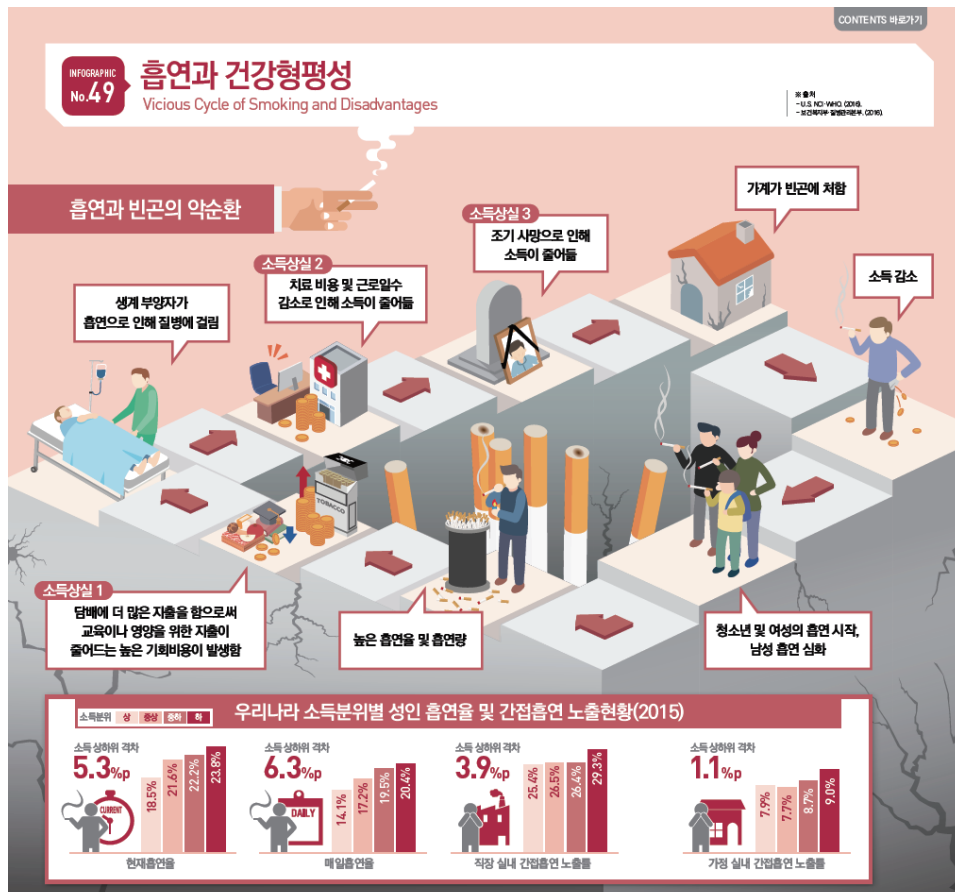
☞ 흡연예방 교육자료, Vol.30

팩트체크,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외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궤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궤련형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다? 궤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금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흡연과 건강형평성

2018년 4월 | 이달의 정책, Vol.30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고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흡연과 빈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담배는 보다 빈곤한 집단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흡연이 소득 손실, 생산성 손실, 질병 및 사망을 통해 빈곤에 기여한다. WHO는 흡연과 빈곤이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 굴레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담배규제, 이젠 이러한 굴레를 간과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

이번 호에서는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아래 링크주소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금연이슈리포트_Vol.49_September_2017



링크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84&spage=1&sRow=10&dataNo=32&dataGr=4&dataLv=1&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8&level2Idx=32&postIdx=496>

웹툰 속 흡연장면과 담배 간접광고

2018년 4월 | 이달의 연구, Vol.30



본 원고는 아래 기사를 번역하였습니다.

[웹툰 속 흡연장면과 담배 간접광고/ 김진영, 이성규 / Tob. Prev. Cessation 2017;3(November):131]

Industry Monitoring Letter

Tobacco ads in the new 'Webtoon' media

Jinyoung Kim¹, Sungkyu Lee²

Dear Editors,

Strong tobacco-control policies and regulations have led the tobacco industry to look for new tactics for marketing and promotion of their brands. Recently, in the Republic of Korea, tobacco tax increased up to 80% and smoking was banned in all indoor places in 2015¹. In addition, pictorial health warnings had been displayed on all cigarette packages from late 2016². These tobacco control policies have successfully created an anti-tobacco atmosphere in the country. Howev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tobacco industry has found a unique place for tobacco marketing, a place where a lot of youths and young adults frequent.

'Webtoon' is a new term introduced and used in Korea to describe web-based comics (cartoons) that are published on the internet. The largest internet search engines in Korea, DAUM and NAVER have provided webtoon services since 2003 and 2004, respectively³. Webtoons have become widely popular in Korea and the Webtoon market has been expanded rapidly and reached USD 58 million in 2016 (KRW 1,000 = USD 1), and the industry predicts that the market will grow to USD 88 million in 2020⁴. According to the official report on Webtoon, which was released in 2015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the total number of Webtoon subscribers in the top 5 Webtoon websites were 95 million, which is almost twice the Korean population. Among them, 36.2% visited the Webtoon websites every day and 38.6% read more than 2 Webtoon series per week⁵. A different source found that almost 8 million people read mobile-based Webtoons and more than 60% were in their teens and 20s⁶.

Due to their rapid growth and the popularity among the teens and 20s, Webtoons have been targeted as the new marketing place by the tobacco industry. For example, a Webtoon had a story about a man who returned to college after his military service. Concerned about his future after graduation, there is a scene of the man smoking and showing a cigarette brand of a Korean tobacco company. The cigarette brand was drawn in detail to be promoted and marketed in the Webtoon. College students smoking in non-smoking areas are shown, in conflict with the many smoke-free universities nationwide. It is important to de-normalize smoking, however, the Webtoon gives a message that smoking in universities is common behavior.

Although webtoons are new media, there are no regulations, such as age restrictions depending on topic and content. The Webtoon providers have their own voluntary self-regulated codes⁷. This can be a loophole for the tobacco industry. They can easily market and promote their brands to target youths and young adults and try to manipulate tobacco-control policies through Webtoons. It is urgent to develop appropriate regulations for Webtoons to protect youths and young adults from tobacco marketing.

Industry Monitoring Letter

Figure 1. A smoking scene from the Webtoon where Mr. Woo, a returned military service veteran, is worried about his future saying, "Recently I see darkness in them I think of cigarettes." The picture of the detailed cigarette package Mr. Woo is holding is a popular cigarette brand of KT&G, a major tobacco company in Korea, THIN+1's success (Figure 1) (left) and image of the brand (Figure 2) (right) are available from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cid=10847&rid=1&mid=1&episodeNo=1>.

Figure 2. Mr. Woo is smoking in the middle of male and female smokers in a room smoking area. The figure is available from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cid=10847&rid=1&mid=1&episodeNo=1>.

Figure 3. KT&G's popular brand, 'Thin+1' is the real image of the brand. The figure is available from <http://www.ktgc.co.kr>.

REFERENCES

1. Choe H, Kim H, Kim S. Cigarette tax increase. *Tob Control* 2016;25:123-4. doi:10.1136/tobaccocontrol-2014-02104
2. Kim J, Kim H, Hwang Y, et al. Impact of partial and comprehensive smoke-free regulations on indoor air quality in bar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6;13:254. doi:10.3390/ijerph13080254
3. Kim D. Cigarette packs in carry graphic health warnings. *The Korea Herald*. 22nd December 2016. Available at: <http://www.koreaherald.com/view.php?rid=20161222000078> (accessed April 2017).
4. Sohn J. Korean webtoon going global. *The Korea Herald*. 26th May 2014. Available at: <http://www.koreaherald.com/view.php?rid=20140526000432> (accessed April 2017).
5. Lee S. 'World's or Korea?' Webtoon industry is alert to the movement to establish Webtoon-related regulations. *Herald Economy*. 19th April 2017. Available at: <http://www.heraldcorp.com/view.php?rid=20170419000062> (accessed April 2017).
6.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Webtoon industr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Jocheon-do Province, June 2015.
7. Ahn H. Webtoon, Web novel users 7.91 million people. *Asian Economy*. 22nd February 2017. Available at: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20170222000042&cat=166> (accessed April 2017).

ACKNOWLEDGEMENTS

Dr and Dr, none of the authors have completed and submitted the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none was reported.

CONFLICT OF INTERESTS

The authors have completed and submitted the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none was reported.

FUNDING

There was no source of funding for this research.

PROFESSOR AND PEER REVIEW

Not commissioned, internally peer-reviewed.

Published by E. J. European Publishing on behalf of the European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Prevention (ENSTP). © 2017 Kim J.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ob. Prev. Cessation 2017;3(November):131
http://dx.doi.org/10.1136/tobaccocontrol-2017-021043

강력한 담배 통제 정책 및 규제로 인해 담배 업계는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담뱃세가 80%나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또한 2016년 후반부터 모든 담뱃갑에 건강 경고 그림이 표기되었다. 이러한 담배 규제 정책은 전국에 반 담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담배 업계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독점적인 담배 마케팅 장소를 발견했다.

'웹툰'은 인터넷에 게시된 웹 기반 만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소개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용어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검색 엔진인 DAUM과 NAVER는 2003년과 2004년부터 각각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웹툰이 널리 보급되면서 웹툰 시장은 급속하게 개발되어 2016년에 5,800만 달러(한화 1,000원 = 미화 1\$)에 달했고, 업계는 2020년에 시장이 8,8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웹툰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개 웹툰 사이트의 가입자는 9,500만 명으로 한국인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 중 36.2%는 매일 웹툰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38.6%는 1주일에 2개 이상의 웹툰 시리즈를 읽었다.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거의 800만 명이 모바일 기반 웹툰을 읽었으며, 10대와 20대가 60% 이상이었다.

웹툰은 급속한 성장과 10대와 20대의 인기로 인해 담배 업계가 새로운 마케팅 장소로 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어, 한 웹툰은 병역 후 대학에 돌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졸업 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한국 담배회사의 담배 브랜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담배 브랜드는 웹툰에서 홍보 및 마케팅 되도록 세부적으로 그려졌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학생들은 전국의 많은 smoke-free 대학과 충돌한다. 흡연을 비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웹툰은 대학에서의 흡연이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웹툰은 새로운 미디어이지만 주제와 내용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 웹툰 제공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체 규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담배 산업을 위한 허점일 수 있다. 그들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웹툰을 통해 담배 규제 정책을 조종하려고 한다.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림 1. 군 복무 후 대학에 돌아온 Mr. Woo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웹툰 장면의 설명은 "최근에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둠이 보인다" 이었다. Mr. Woo가 가지고 있는 담배의 자세한 그림은 한국의 주요 담배 회사인 KT&G의 인기 담배 브랜드인 'This PLUS'(그림 3) (브랜드의 실제 이미지)이다. 해당 이미지는 아래 링크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26907&no=8&weekday=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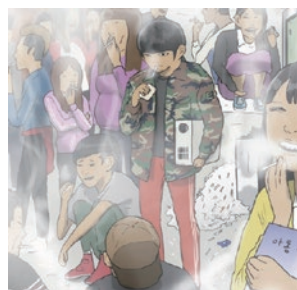


그림 2. Mr. Woo는 금연 구역에서 남성과 여성 흡연자 한 가운데에서 흡연하고 있다.



그림 3. KT&G의 인기 브랜드, 'This Plus'(브랜드의 실제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아래 링크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jjmall.net/?folder=shop&page=view&c1=20000&c2=20200&c3=20201&pd_code=10101&PHPSESSID=7a6ce15a9c753ff8c9c0e12bf216c4b6

태안 창기중, 흡연예방교육 및 체험관 운영 외

2018년 4월 | 학교 소식, Vol.30



3월 3주차 ~ 4월 2주차

□ 이주의 보도

○ 태안 창기중, 흡연예방교육 및 체험관 운영

태안군 창기중학교(교장 김종범)는 지난 2일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금연선포식 및 흡연예방 체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 오해하기 쉬운 전자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금연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폐활량을 직접 측정해 보며 건강한 폐 유지를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험 학습에 참여한 김만석 학생(1학년)은 “집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면 옷이나 침대 같은 곳에 나쁜 성분이 남아있고 이로 인해 3차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할아버지와 아빠께 담배를 끊도록 말씀 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공규택 학생(3학년)은 “흡연예방교육이라 해서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니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너무 즐거워 한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담배와 알코올의 유해성을 알게 된 학생들은 금연다짐나무에 손도장을 찍으며 ‘금연, 금주의 청정 학교 만들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 청도전자고, 흡연예방 및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금지운동 캠페인 실시

청도전자고등학교(교장 기세원)는 지난 11일 ‘흡연예방 및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금지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학교 흡연예방 문화 정착과 담배연기 없는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흡연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한 주간 운영되는 ‘학교 금연강조주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청도전자고등학교 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피켓과 어깨띠를 매고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편의점과 가게를 순회하며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안내문을 전달했다.

캠페인을 통해 학교의 흡연예방 문화조성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청도전자고는 2018학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에 선정돼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금연선포식을 포함해 금연클리닉, 금연서포터즈 등 다양한 학생중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연 클리닉은 청도군 보건소의 협조로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보도자료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 관리자 연수 등 추진
- 보건소: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흡연예방 부스 등 운영
-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마라톤 대회 등 실시

2018.3.19. 시민일보(교육청)

충남도교육청-금연지원센터, 학교 내 금연·흡연예방 맞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본청 정책협의회의실에서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육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상담전화’, ‘금연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확대해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흡연을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흡연예방 및 금연은 교육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동참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흡연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3.19 신아일보(보건소)

연천군,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경기 연천군은 오는 7월까지 청소년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과 함께 관내 20개교 초·중·고등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관내 학교의 희망 신청을 받아 연천군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와 한국금연운동협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흡연·음주가 청소년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금연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연천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음주는 습관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상 그 위해성이 성인보다 심각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술·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자아 인식변화와 흡연육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16. 일요서울(교육청)

인천남부교육청 학교흡연 강사지원 평가회 실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16일 금연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학교흡연예방 강사지원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2017년 학교흡연예방 강사지원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난 1년간 총 609회에 달하는 강의 후 강사별 운영 결과와 실적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강사 인력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생교육건강과 김재영 과장은 “학교흡연예방 강사지원사업은 특히 외부강사 섭외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크게 도움이 됐으며, 2018년에도 금연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제공 및 사례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3.20. KNS 뉴스통신(보건소)

정읍시,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 ‘총력’

정읍시보건소가 정읍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첫 일정인 이평중학교를 시작으로 42개 초·중·고 학생 6,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희망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또 금연 상담사와 금연 전문 강사가 학교를 순회 방문, 청소년기 흡연의 폐해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점을 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 수 록 어려워져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의 흡연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흡연 예방 교육이 학생들의 흡연 예방에 도움을 줌은 물론 (학생들의) 흡연 가족의 금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3.21. 경상매일신문(학교)

안동 경안여중, 아침밥 나누기 청춘밥심 캠페인 청소년 흡연예방 행사…학폭 예방 홍보물 배부

안동 경안여자중학교(교장 이세원)는 20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아침밥 나누기 청춘밥심’ 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 흡연예방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흡연예방을 홍보하는 띠를 매고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구호를 외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행사를 실시했다.

이세원 교장은 “경안여중은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 하고 다양한 상담활동 등을 실시해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3.26. 철원신문(학교)

담배연기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흡연예방 캠페인

매년 3월 23일 김화고등학교·김화여자중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건강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철원군보건소(소장 심인구)에서는 3월 23일 흡연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면건강생활센터와 함께 건강 마라톤대회에서 흡연예방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마라톤 대회는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하여 반환점인 119안전센터를 돌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코스로, 철원군보건소는 반환점인 119안전센터 앞에서 학생들을 응원하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또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100명의 학생들에게는 경품을 통해 “맑은 학생”선물을 증정하며,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여 새로운 청소년 흡연자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2018.3.27. 국제뉴스(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흡연예방 관리자 연찬회 개최

충북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

‘제13차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6.3%에서 6.4%로 전년대비 0.1%증가 했으나, 충북은 6.9%에서 6.1%로 전년대비 0.8%로 감소했다. 또한 작년 충북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전국평균 대비 0.3%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각 급 학교별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흡연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흡연학생이 참여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S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학교흡연예방 관리자 연찬회’를 실시했다.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는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꾸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흡연예방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3.27. 한라일보(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관내 18개 초·중·고에서 4,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말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금연상담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담배유해성분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 흡연과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을 거절하는 법 등을 바르게 알려 성장기 청소년들이 담배에 조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비만예방교육, 운동교육 등도 병행 실시한다.

작년에는 19개 초·중·고 학생 3,814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행사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홍보관도 운영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3.27. 시사제주(학교)

효돈초, ‘흡연 예방교육’ 실시

효돈초등학교(교장 강성룡)는 지난 26일~27일 이틀 간 ‘흡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담배의 주요 성분 및 유해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 간접흡연의 폐해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시간을 보냈다.

효돈초 강희숙 교감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담배가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2018.3.31. NSP 통신(보건소)

완주군, 중학생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전북 완주군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예방을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8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담배의 성분 및 분석을 통한 유해성 교육, 흡연으로 인한 폐 모양 체험, 폐활량을 측정해 학생들에게 일깨워줬다.

김경이 완주군보건소장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4.1. 인천일보(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흡연예방사업 자문위 및 현장지원단 위촉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2018 학교흡연예방사업 자문위원회 및 현장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양수 위원장은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며 자문단 및 현장지원단의 학교 현장 지원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2018 학교흡연예방실천학교 선정 및 지원, 흡연예방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흡연예방 금연자료(SENSE, Jr.END, END)배포, 학교출입구 금연표시 도색 및 교내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 제3회 흡연음주예방 사진공모전, 흡연예방실천학교 사례 나눔 및 공유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숙 교육장은 흡연예방교육, 금연 성공사례 발굴 및 확대 적용을 통한 자주적인 금연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4.1. 신아일보(보건소)

예천군, 초·중·고 대상 흡연예방 교육 실시

경북 예천군보건소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21개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흡연예방 교육은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흡연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분과 유해성 등 흡연의 폐해를 각인시키고 중독성 물질인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천초등학교 등 4개교에는 ‘금연골든벨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의 교육 틀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교육으로 학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8.4.3. 충청신문(학교)

태안 만리포고,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 위한 학생회 리더십 워크숍 개최

태안군 만리포고등학교(교장 권병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남면 팜카밀레 허브농원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학생회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학생 자치적으로 수립하고 교내의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학생회 임원들은 워크숍에서 방향제와 머그컵을 만드는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부회장 서원진 학생(2학년)은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을 위한 리더십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학생들 스스로 안전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정말 뜻깊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18.4.3. 충청신문(학교)

태안 창기중, 흡연예방교육 및 체험관 운영

태안군 창기중학교(교장 김종범)는 지난 2일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금연선포식 및 흡연예방 체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 오해하기 쉬운 전자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금연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폐활량을 직접 측정해 보며 건강한 폐 유지를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김만석 학생(1학년)은 “집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면 옷이나 침대 같은 곳에 나쁜 성분이 남아있고 이로 인해 3차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할아버지와 아با께 담배를 끊도록 말씀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공규택 학생(3학년)은 “흡연예방교육이라 해서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니 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지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너무 즐거워 한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담배와 알코올의 유해성을 알게 된 학생들은 금연다짐나무에 손도장을 찍으며 ‘금연, 금주의 청정 학교 만들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2018.4.3. 불교공뉴스(보건소)

유성구, 체험형 흡연예방 교육으로 건강한 학교 만든다

유성구 보건소(소장 최경만)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 초등학교 6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금연전문강사를 통해 흡연예방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담배의 유해성 알기, 식물성장 체험 △우리 몸 장기 체험그리기 △담뱃갑 그리기 △금연 팔찌만들기 △금연 골든벨 등 5차시로 구성했다.

또한 금연 전문강사의 흥미진진한 강의와 흡연자의 망가진 폐 모형이나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유도한다. 강의 후에는 금연 골든벨, 금연 서약서 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비규범화 흡연예방교육, 금연동아리 결성, 금연교실시범학교지정 등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기교육이 꼭 필요한 분야가 흡연예방 교육이고 지난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흡연의 폐해를 알려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4.6. 경북도민일보(보건소)

상주시보건소,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5월 17일까지 지역 초·중·고등 10개교를 순회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밀착형 금연체험 활동교육으로 △담배, 너 뭐니? △죽음의 마약 니코틴 △흡연 NO, 금연 YES △평생금연결단을 주제로 금연나무 만들기, 금연 퀴즈, 가족에게 금연엽서쓰기 등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해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함께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상주시보건소는 학교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심각성과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체계화된 예방교육으로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2018.4.8. 인천일보(학교)

안산 송호중,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

안산 송호중학교는 지난 5~6일 이틀간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을 갖고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지도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는 먼저 5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몸도 금연구역’이란 빅 핸드 풍선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담배 1개비를 피우면 기대 수명 11분이 짧아진다’ 등 피켓을 들고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진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각 반 교실에서 본인의 건강과 밝은 미래를 위해 평생 흡연을 하지 않기로 하고 흡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금연을 권유 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식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평생 금연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점심시간에 진행된 ‘금연’ 2행시 짓기, 금연권유 엽서 쓰기, 평생금연서약서 작성, 지문으로 학교 금연 실천트리 만들기 등에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018.4.9. 금강일보(학교)

공주 석송초, 흡연예방 및 금연 선포식

공주 석송초등학교(교장 김영걸)는 9일 오전 석송교훈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흡연 학생의 증가, 흡연 인구 저 연령화로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중심의 흡연 예방 및 금연 활동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흡연예방 및 금연 선포식의 취지 소개, 흡연예방 동영상 시청, 교감선생님 말씀, 금연선언문 낭독 및 금연 선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결단했다. 박민숙 교감은 “학생들이 선포식을 통해 금연 의지를 다지고, 가정으로 전파해 가족 금연을 유도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4.10. 금강일보(교육청)

충남교육청, 80곳 심화형 학교 지정… 특색사업 진행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올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 학교 소재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화형과 기본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본형은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심화형은 학교와 지역상황, 학교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게 된다. 올해 80개교가 심화형 학교로 지정됐다.

심화형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며 지역상황과 학교 특성분석을 토대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실제로 심화형 학교로 선정된 반곡초에서는 ‘벽화 그리기’를, 아산중은 ‘백의종군로 행군’, 대천고는 ‘금연 UCC 경연대회’ 등 학교 특색에 맞게 특화사업을 추진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조기성 충남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은 “학교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청소년 흡연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앞으로 학교들이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4.11. 광남일보(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등곳길 캠페인

전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나임)은 11일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영암군 보건소, 영암군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018.4.11. 대전투데이(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은 지난 10일 홍성초에서 안전한 학교 조성을, 흡연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했다. 이번 캠페인은 홍성경찰서, 홍성군청, 홍성초등학교, 홍성군녹색어머니회, 홍성군모범운전자회의 지역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함께했다.

홍성교육지원청 우길동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4.12. NSP 통신(학교)

청도전자고, 흡연예방 및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금지운동 캠페인 실시

청도전자고등학교(교장 기세원)는 지난 11일 ‘흡연예방 및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금지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학교 흡연예방 문화 정착과 담배연기 없는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흡연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한 주간 운영되는 ‘학교 금연강조주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청도전자고등학교 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피켓과 어깨띠를 매고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편의점과 가게를 순회하며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안내문을 전달했다.

캠페인을 통해 학교의 흡연예방 문화조성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청도전자고는 2018학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에 선정돼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금연선포식을 포함해 금연클리닉, 금연서포터즈 등 다양한 학생중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연 클리닉은 청도군 보건소의 협조로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18.4.13. 충북일보(학교)

총일중, 등갓길 흡연예방 캠페인 실시

총일중은 13일 오전 학교 정문에서 권순섭 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과 학생자치회 임원, 금연서포터즈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등갓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총일중은 2015년부터 4년째 심화형 학교흡연예방학교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자존감증진을 통한 흡연예방을 목표로 '위아갓맨'이라는 슬로건을 정해 흡연도 예방하면서 즐겁게 친구들과 배우도록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동과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4일 금연선포식과 금연 골든벨을 실시한데 이어 13일 위아갓맨 등갓길 흡연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갓길은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No smoking'이라는 인사와 함께 악수를 하면서 캔디를 나눠줘 등교하는 학생들과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즐거운 아침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학생자치회 임원 30여명과 금연서포터즈(위아갓맨메신저) 13명, 권순섭 교장과 교감·교사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전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8.4.13. 문화뉴스(학교)

'금연홍보대사 될래요' 각남초, 흡연예방 교육 실시

각남초등학교(교장 최정하)는 지난 12일에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도군 보건소 협조로 마술공연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흡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술과 골든벨 퀴즈풀기를 통해 흡연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흡연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취해야 될 올바른 행동과 담배를 피울 때 얼마나 많은 해로운

물질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지 알고 평생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5학년 한 학생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최고의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흡연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금연하라고 말하겠다”며 앞으로 금연홍보대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2018.4.14. 중도일보(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감염병예방 연수 가져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은 지난 13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학교보건 업무담당교사 대상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 및 학생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는 흡연을 위해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018년 학교 흡연예방사업 추진에 대해 남면초 한유준 보건교사의 설명과 2017년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에 대한 사례를 안면고 유진곤 교사가 발표했다. 이어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및 운영에 대해 백화초 박선경 보건교사가 설명하고 태안보건의료원에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을 학교에서 빈발하는 감염병 내용의 연수를 통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학교보건 업무담당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2018.4.14. 중도일보(학교)

서산공업고, 하나된 목소리로 금연을 외치다

서산공업고등학교(교장 류재풍)에서는 지난 11일 2018 감성 총만 금연송 합창 경연대회를 통해 전교생과 전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서산공고는 흡연 없는 청정학교를 만들기 위해 금연 선포식부터 학생들과 함께하는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금연 포스터 및 웹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2017년 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학교생활 속의 흡연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이 금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흡연 예방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도록 힘쓰고 있다.

2018 감성 총만 금연송 합창 경연대회는 기존에 개최되었던 학급별 합창경연대회에 금연송을 지정곡으로 추가해 진행됐으며, 학급별로 금연송 및 자유곡에 걸맞은 안무와 포스터, 소품 등을 활용하여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1학년 김지수 학생은 “무대에 오르니 조금 떨렸지만 다 함께 무대에서 한목소리로 노래하다보니 연습한 것처럼 할 수 있었다”며 1등을 한 것 도 기쁘지만 선생님과 반친구들과 같이 연습하던 시간이 값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으며, 합창대회가 끝나고 더욱 하나 된 마음으로 돈독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정서지능이 높은 글로벌산업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서산공고 류재풍 교장은 “이번 합창 경연대회 준비로 사제동행하며 반별로 화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기가 더해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 이번 감성 충전 금연송 합창대회를 통해 서산공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3행-3무를 더욱 잘 실천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4.16. UPKOREA(보건소)

안동시,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생 흡연예방 교육 실시

안동시보건소는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86개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평균 7.8%에서 2016년 6.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선진국인 호주(5.1%), 뉴질랜드(6.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 흡연율 평균 3.5%, 고등학교 남학생 14.7%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금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으로 담배판매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흡연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 6일 한국청소년유해중독예방협회 영남지부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유해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또한, 중학생들은 대상으로 금연 골든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고 체험부스를 설치해 폐활량 측정 등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제일중학교 이용 선생님

2018년 4월 | 현장 인터뷰, Vol.30

1. 소속 학교 소개 및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제일중학교는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 참여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 되었다가 광복 후 복교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의 명문 학교입니다. 2018년 현재 동일주소지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있고, 성실□근면□창조의 교훈 아래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바른 수업태도 갖기와 틈새를 이용한 독서의 생활화의 2가지 중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참 학력 모델학교 운영이라는 특색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군산제일중학교에서 2016년부터 학교폭력과 학교흡연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입니다.



2. 학교의 특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흡연예방사업 기본형 학교인 우리 학교는 심화형 학교 대비 적은 예산으로 운영 중이지만 학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관리자와 교사, 교직원이 함께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비나 다른 예산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학교 흡연학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흡연 중인 학생이 많은 실정이며,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 주소지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넓은 교정으로 학생 관리적 측면의 사각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의 훈련이나 다른 학교 운동부와 연습경기 때 학부모나 관련된 분들의 흡연으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한 결과, 사각지대 감독 강화, 상습 흡연 지역 현수막 게시, 학부모나 관계자의 흡연 시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즉시 꺼주실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관리자와 교직원들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 교육청 주관 학생흡연예방사업인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활동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흡연예방사업들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만족스러웠던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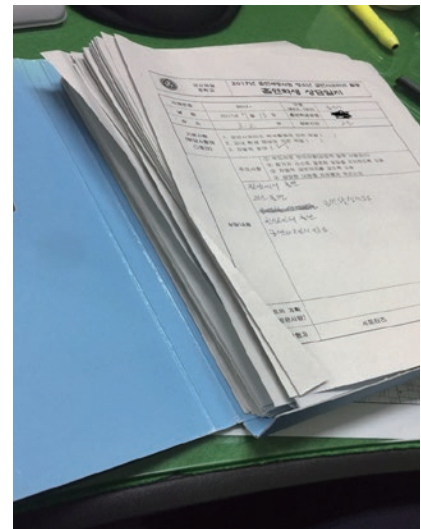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활동 중에서 “담배판매업소 방문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캠페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당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말고, 담배를 사려는 사람이 학생으로 의심된다면 신분증을 요구해 달라는 당연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업주가 “내가 내 가게에서 담배를 팔던지 말던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나가!”라며 큰소리치고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안전까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였고,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함께 담배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동조해주시는 업주들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관련 내용이 지역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게재 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사업)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금연 서포터즈 학생이 흡연학생과 자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했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상담과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두지 않고, 교사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안이라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섭외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고, 상담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간식에 목적을 두고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몇 회를 제외하고는 간식을 제공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150회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일과 시간을 쪼개어 이루어진 상담이었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몇 분간의 대화를 통해 흡연학생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금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5.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전자담배가 학생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활동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담배판매 업소방문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캠페인 활동”을 전자담배 판매 업소까지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만의 캠페인이 아닌 학교와 지역, 경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캠페인이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또한, 2017년 사업 중 학생참여도가 가장 높았다고 생각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 캠페인 활동 시 단순히 서명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연 관련 문구를 새긴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캠페인 참가자에게 금연에 대한 메시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6.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또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담배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흡연이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향과 맛을 내는 액상을 구하기 쉬워서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일반 담배 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물에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휴대하기 간편하고 덜 유해하다는 식의 광고로 인해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휴대성 식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유해성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 일선 학교로 확산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7. 마지막으로 전국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 교사들은 비흡연 학생들의 흡연예방과 흡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멀리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실행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 교사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을 뽀히 알고 있는 흡연학생에게 금연을 권유하고, 비흡연 학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및 활동이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한다는 효과를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응원 한마디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 안내 외

2018년 4월 | 학교 알리미, Vol.30



□ 공지사항

○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 안내

-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WHO가 정한 기념일(매년 5.31.)
- 매년 주제를 정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및 홍보를 통해 각 회원국의 원활한 금연정책 추진 도모

□ 2018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 : 「Tobacco and heart disease」

○ 담배와 심장 및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WHO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 안내 사이트
(<http://www.who.int/campaigns/no-tobacco-day/2018/event/en/>)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추후 시달되는 공문에 따라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 추진 권고

□ 사업동정

○ 고도 흡연 학생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일정 : 2018년 5월 ~ 11월
- 대상 : 전국 고등학교 중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참가 신청 학교(참가 신청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 내용 : 고도 흡연 학생 프로그램(CROWN,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원 원격 직무연수 과정 개발 사업 추진

- 일정 : 2018년 5월 ~ 11월
- 내용 :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원 직무연수 교재 기반 온라인 과정 개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19년부터 원격 직무연수 과정 개강

팩트체크, 껴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외

2018년 4월 | 흡연예방 교육자료, Vol.30



□ 팩트체크, 껴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껴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첫째, 껴련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 둘째, 껴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 셋째, 껴련형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다?

껴련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금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자료 유형 : 동영상(MP4)
- 제작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자료링크

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83&spage=1&sRow=10&dataNo=6&dataGr=2&dataLv=0&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6&level2Idx=19&postIdx=495>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소개 인포그래픽(2018. 4. 기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소개 인포그래픽(2018년 4월,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 자료 유형 : 이미지(JPG)
- 제작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자료링크

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92&spage=1&sRow=10&dataNo=&dataGr=&dataLv=&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5&level2Idx=104&postIdx=507>

